

孔世權*
曹愛姐**

出産力轉換과 2次的 影響

目	I. 關心의 焦點
	II. 轉換의 特徵
	III. 2次的 影響
次	IV. 맺음

I. 關心의 焦點

人間의 欲求나 觀念은 狀況變化에 따라서 多元的인 性向을 나타낸다. 새로운 欲求의 創出이나 充足을 위한 挑戰은 加速化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生活터전은 엄청난 變化를 가져왔다. 變化의 原因으로서의 技術開發은 人間에게 새로운 可能性을 提示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逆作用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치 「오그번」(Ogburn)의¹⁾指摘과도 같이 社會制度나 人間의 價値觀이 技術開發을 따르지 못하는 文化遲滯(cultural-lag)現象에서의 混沌과도 같은 것이다.

原草의으로 技術의 開發은 人間들이 풍요롭고 便宜한 삶을 누리기 위한 欲求充足의 手段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技術開發로 인한 社會制度나 價値觀의 不均衡을 調整하지 못하거나 制御能力을 갖지 못할 때 人間生活은 또 다른 混沌이 불가피하게 된다.

今世紀에서 技術革新과 併行된 人口暴增現象은 「말서스」(Malthus)의 豫言의 再現처럼 또 다른 次元에서의 우려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다. 技術開發이 死亡力을 낮추는데 貢獻하면서부터 出産力은 死亡力低下를 뒤따르지 못한데서 人口增加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人口增加現象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鈍化策으로서 出産力低下라 하겠다. 西歐의 産業化 初期에서 出産力 變化는 産業化와 都市化로 많은 子息이 資産이라는 認識에서 負債라는 觀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부터 시작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員.

1) William F. Ogburn, "Cultural lag as theor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41, 1957, pp.167~174.

되었다.²⁾ 그러나 이 보다 뒤진 상황에서 人口增加 現象을 나타낸 開發途上國들은 자체적인 技術開發로 인해서 死亡力低下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先進國에서 開發된 技術을 직접 導入하는 形態에서 급속한 死亡力 減少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人口增加도 急激했던 것이다. 따라서 出産力 變化는 종래의 西歐의 樣相과 같은 점진적인 低下를 기대할 수 없었고, 人爲的인 出産調節을 서두르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時代的으로 각기 다른 狀況에서 出産力을 人口增加鈍化의 열쇠로 여겨왔지만 出産力이 低下된 背景은 같을 수 없었다는데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人口의 轉換은 社會變遷과 관련시켜 설명될 수 밖에 없고 理論的 論據도 經驗을 토대로 定立될 수 밖에 없음은 人口와 社會變化가 複合的인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産業化 初期社會에서의 두드러진 現象은 人口增加와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要約되지만 絶對性은 人口增加 現象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또 人口增加의 決定要因을 出産力과 死亡力の 隔差現象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死亡力低下는 인간의 絶對欲求 중의 하나이지만 出産力은 相對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先進國은 産業化의 成熟段階에서 낮은 死亡과 낮은 出産樣相으로 安定人口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開發途上國家들은 그렇지 못한 狀況에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對策없는 人口增加는 經濟的으로 뒤진 開發途上地域에서 한층 더 發展에 可逆的 要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응한 出産力低下를 위한 試圖³⁾으로써 國家次元에서의 組織的인 産兒制限運動은 今世紀의 새로운 人口革命이 아닐 수 없다. 革命은 늘 成功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挑戰에 불과할 뿐 結果에는 많은 副作用이 예상되는 것이다. 또 人口에 관한 政策은 長期的인 次元에서 相對的으로 人間生活과 관련시켜서 據論되어야 하며, 革命的인 性格을 지닐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四半世紀에 걸친 人口革命에서 出産調節의 結果가 人口를 代置水準까지 抑制시킬 수 있었음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던 점을 懷古케 한다.

出産力低下가 것처럼 어렵고 文化的 마찰이 있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가는 또 다른 관심의 하나이다. 즉 出産當事者들이 잠재적으로 少子女를 원하고 있었던 차에 때를 같이하여 出産調節의 動機⁴⁾를 造成함으로써 出産力低下에 成功할 수 있었던

2) Paul Ehrlich, *The Population Explosion : Facts and Fiction*, Palo Alto, Calif : Zero Population Growth, 1970.

3) Kingsley Davis, "Population policy : will current programs succeed?" *Science*, Vol.158, No.10, 1967.10.

4) Ronald Freedman,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1975.

것인가? 그렇다면 大家族制度에서 少子女家族으로의 移行을 왜 그렇게 원했으며, 뒤따르는 問題는 없었던 것인가? 우리 社會가 西歐의 經驗을 입증할 만큼 少子女의 當爲性이 강조되었다면 傳統文化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올 수 있을 만큼 강한 動機는 무엇이었는가? 本稿는 이상과 같은 의문을 전제로 짧은 기간내의 出産力 轉換의 背景을 검토하면서 出産力低下의 2차적인 影響이 어떤 것인지를 吟味하는데 焦點을 둔 것이다.

II. 轉換의 特徵

狀況의 變化는 時間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平地나 경사진 곳을 흐르는 물과 같은 理致를 나타낸다. 최근에 이를수록 人口成長 曲線이 치솟고 있음은 狀況變化가 그만큼 急激함을 뜻하며, 人口가 급격히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生生活動이 加速化되고 새로운 狀況을 創出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 새로운 狀況에 맞지 않는 傳統의 制度나 規範은 고쳐야 하고 늘어나는 人口를 위해서는 그만큼 生存與件을 開發해야만 한다.

이처럼 轉換에는 時間上의 進行만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狀況에 따라 각기 다른 要求와 事件들이 발생되었음은 歷史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점이다.

우리의 近代史에서 開化期의 東學亂이나 日帝期의 3.1運動, 또 分斷期의 6.25나 4.19와 같은 國家的 事件들은 主體的이고 能動的인 삶 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排戰⁵⁾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歷史속에서 人口도 時代的 變化에 따라서 그 樣相을 달리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를 소급할수록 신빙성있는 人口資料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6세기 중엽까지 韓半島의 人口는 250萬名 정도로 推定되고 17세기 중엽에는 730萬名을 헤아린다.⁶⁾ 또 18세기 중엽에는 680萬名의 人口로서 당시의 人口樣相은 多産多死의 停滯期를 벗어나지 못했었으나 19세기초부터는 완만한 成長을 보이기 시작했다.

韓半島 人口는 19세기초에 1千700萬名으로 당시 出生率은 35~40, 死亡率은 27~32水準으로 推定되었다. 그러나 1910~1945年間の 日帝期는 人口의 停滯期를 벗어나서 미미한 成長期로 접어든 時期였다.⁷⁾ 西歐文化의 影響이 점차 死亡率을 低下시키면서 人

5) 盧明植, 韓國近代史의 挑戰과 展望, “90年代의 挑戰과 未來創造”, 全經聯研究叢書, 第4卷, 韓國未來學會, 1978, pp.101~103.

6) 善生永助, “朝鮮의 人口現象”, 朝鮮總督府 調查資料, 第22輯, 1927.

7) United Nations, ESCAP, *Population of Republic of Korea*, Country monograph series, No.2, 1975.

口調査도 1925년이후부터는 每 5年마다 실시되어 비교적 신빙성있는 人口變動 趨勢를 관찰할 수 있었다. 1920년에는 약 1千700萬의 韓半島人口가 1944년까지는 2千510萬名으로 늘어났고 人口增加率도 약1.5퍼센트 水準을 유지하였다.⁸⁾ 解放과 함께 分斷된 韓半島는 1950년에 한 차례의 韓國動亂을 겪으면서 人口變化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分斷後인 1946年 南韓의 人口는 1千937萬名, 北韓은 926萬名으로 韓半島의 人口는 2千863萬名으로 推定되었으나 1980년에는 5千602萬名(南韓：3千813萬名, 北韓：1千789萬名)으로 35年만에 人口는 倍增現象을 나타냈고 다시 1985년에는 6千66萬名(南韓：4千58萬名, 北韓：2千8萬名)으로 增加하였다. 解放後 人口의 急速한 增加는 人口1,000名當 20에 접근하던 死亡率이 1965년에는 10水準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7水準에 이르고있는 반면 出生率은 40이상을 넘던 水準이 1965년에는 南韓이 34, 北韓은 39로, 또 최근에는 南韓이 23, 北韓은 32水準으로 완만한 減少⁹⁾ 趨勢를 보이는데 있다.

解放과 國土分斷 그리고 動亂등 일련의 정치적 事件들이 人口面에 미친 영향은 海外에 망명하였던 250萬名에 가까운 同胞가 解放과 함께 歸還^{10~12)}한 점에서나 動亂時의 南北韓 人口의 大移動, 130萬名에 이르는 死傷者¹³⁾등이 絶對人口 規模에 作用된 점이다. 그 외 2차대전중 젊은男性의 徵用과 韓國動亂時 軍入營으로 인한 結婚延滯 또는 死別現象 등은 出産力 뿐만 아니라 家族缺損要因으로도 作用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結果들은 社會的 安定期를 되찾으면서 1950年代 後半期에는 「베이비 붐」이란 多産現象을 나타냈고, 人口增加率은 絶頂에 이르러서 1960年代에는 出産調節이라는 課題를 안게 했다.

人口政策으로서의 出産調節은 모든 社會가 公同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課題는 아닌 것이다. 近代化에서 人口轉換이 말해주듯 過剩人口增加의 위협에서 취해질 수 있는 對應策이 바로 出産調節임은 말할 것도 없다. 先進國과는 달리 2차대전을 계기로 高出産과 低死亡의 狀況으로 변한 開發途上國은 出産調節問題가 절실하면서도 可能性에 대하여

8) Irene B. Taeuber, G. W. Barclary, "Korea and Korean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opulation Index*, Vol.16, No.4, 1950.

9) 李時伯, "南北韓 人口의 長期展望과 人口學的 比較分析", 韓國人口學會誌, 第8卷, 第2號, 韓國人口學會, 1985, pp.14~15.

10) 韓國銀行, 韓國經濟年鑑, 1949.

11)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經濟 10年史, 1970.

12) _____, 國勢調查結果(未發表), 1949.

13) 韓國銀行, 韓國經濟年鑑, 1955.

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음은 바로 出産行爲가 文化的 또는 規範的 要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절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었다.¹⁴⁾

儒敎文化圈인 우리나라에서는 子女는 血統의 繼承이나 勞動力이나 老後依存方案으로 썬 인식되어 왔으며, 男尊女卑思想이 강하여 「富貴多男」과 같은 관념이 普遍性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진적인 産業構造의 變化와 함께 子女의 經濟的 價値도 變化될 수 밖에 없었고, 높은 教育熱은 相對的으로 教育負擔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1960年代 初期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夫婦가 3男2女를 두었으나 1970年代에 이르러서는 2男1女로, 최근에 와서는 1男1女 水準에서 만족할 수 있는 子女觀을 갖게 한 것이다.¹⁵⁾ 이러한 점은 出産調節의 영향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構造의 多變化 및 都市化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1960年代부터 시작된 人口增加抑制策으로써의 出産調節은 可妊期 夫婦들을 對象으로 체계적인 出産調節 動機를 造成함으로써 出産力低下를 圖謀한다는 점이 주요 骨格이었다. 그렇지만 初期事業에서 人口增加 鈍化는 家族計劃에 의한 영향 보다는 潛在的 過多出産의 忌避現象에서 비롯되는 人工妊娠中絶이나 婚期の 遲延, 人口構造上 可妊層의 比率이 낮았던데서 나타난 영향이 더 컸던 것 같다.¹⁶⁾

그러나 지속된 家族計劃事業은 出産力低下를 꾸준히 유도해왔고, 1965년 後半期부터는 年齡別 出産率이 각 年齡層에서 下降趨勢를 나타내기 시작했다.^{17,18)} 이 중에서 40대 이상이나 35~39歲의 高年齡에서의 出産力低下는 보다 현저했으며, 최근에 이를 수록 20代에서의 出産集約現象을 보여줌과 아울러 出産速度도 한층 빨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19,20)} 避妊率의 增大와 出産力低下와의 相關性은 많은 연구에서도 提示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樣相은 예외가 아니었다. 1985年 15~44歲 可妊婦人중 70퍼

14) Donald J. Bogue, "The end of population explosion", *The Public Interest*, No.7, 1967, pp.11~20.

15) 孔世權外, 韓國家族計劃事業: 1961~1980,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16) Taek Il Kim, John A. Ross, George C. Worth,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The Population Council, 1972.

17) Tae Hwan Kwon,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p.348.

18) Sung-Bong Hong, Walter B. Watso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Induced Abortion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p.164.

19) 孔世權外, 前掲書, 1983, pp.324~329.

20) Y. J. Kang, *Analysis of Birth Interval and Fertility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81.

센트를 上廻하는 避妊率에서 出産率은 20이하로, 그리고 合計出産率은 2.1水準을 나타내고 있음은 避妊자체의 영향 보다도 出産調節의 動機形成과 霧圍氣 造成이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1,22)}

이상과 같은 점을 要約해 볼 때 우리나라의 出産力 轉換의 特徵은 日帝期에서부터 死亡力低下와 함께 出産力이 다소 下向性を 나타냈으나 死亡力低下가 뚜렷하지 못했던 당시의 出産力低下는 미미한 減少였고, 多産現象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解放과 分斷期에서는 社會的 不安이 지속되면서 人口面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2次 大戰과 韓國動亂은 오히려 死亡力 增加와 結婚 延滯現象등이 出産力低下에 作用되었던 것이다. 이는 1944~1955年間の 총인구증가수가 526萬名에 불과했음에서 實證되고 있다. 그러나 社會的 安定期를 되찾은 1950年代부터는 급속한 死亡力低下에 따라 相對的인 높은 出産力은 人口增加의 絶頂을 이루게 하였고 이의 對應策으로써 出産調節을 서둘러야 하는 課題를 남게 하였다.^{23,24)} 그렇지만 出産力은 이에 대한 調節을 시작하면 서부터 低下現象이 뚜렷해진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低下趨勢를 나타낼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對象集團의 出産行動의 變化가 점진적이었음을 뜻한다.

이제까지의 出産力低下로 나타난 최근의 人口動向을 살펴보면 지난 半世紀間 急速했던 人口變動도 이제는 鈍化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점진적인 成年人口의 轉換을 엿볼 수 있다.²⁵⁾ 그것은 出産率의 미미한 減少와 死亡率의 安定趨勢, 그리고 都市化率의 鈍化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出産力의 점진적인 低下와 死亡率의 安定은 人口構造面에서도 成年化를 뜻하며, 人口增加率의 鈍化는 2023년에 5千257萬名の 人口에서 停止를 豫想케 하고 있다. 따라서 1960年 총인구에 대한 平均年齡은 23.4歲였던 것이 1980년에는 26.0歲로 그리고 2000년에는 28.6歲로 늘어나며, 2023년에는 37.3歲

21) Dorothy L. Nortma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The Population Council, 1982, pp.21~22.

22) Kap Suk Koh, "A review of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fertility and contraceptive prevalence in Korea : some implication for policy suggestion", *The J.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Vol.8, No.2, 1985, p.82.

23) Ming-Cheng Chang, *From now to zero, Population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 the case of Taiwan*, (mimeo), 1986.

24) T. H. Sun, H. S. Lin, Ronald, Friedman, "Trends in fertility, family size, preference and family planning practice : Taiwan, 1961~1976",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9, 1978, pp.54~70.

25) 經濟企劃院,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2퍼센트 標本速報集計結果, 1986, 11.

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러한 人口像이 갖는 意味는 多元的 觀點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가 複雜, 多樣化됨에 따라 젊은 층의 價値觀이 普遍化되고 過密社會에서는 競爭意識의 高調 등 社會·政治的 問題 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消費構造가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四半世紀에 걸쳐서 나타나는 급진적인 出産力轉換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新興開發國에 속하는 「홍콩」, 「싱가폴」, 「대만」 등지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1950年代의 日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 轉換의 論理도 學者에 따라서 見解를 달리 하겠지만 최근 新興開發國에서의 出産力 轉換은 西歐의 傳統的 理論을^{26,27)} 벗어난 産業化와 함께 人爲的으로 造成된 出産調節動機에 의해서 急進展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²⁸⁾ 다시 말해서 西歐의 경우는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社會·經濟構造의 變化가 低出産을 誘導할 수 있었던 반면에 新興開發國들은 出産動機造成과 병행된 産業化 過程이 低出産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점이다.

Ⅲ. 2次的 影響

出産力低下의 意味는 그 動機에서부터 國家的 次元과 個人 또는 家族的인 次元이 같을 수는 없다. 國家的 立場에서 出産調節은 過剩 人口增加抑制라는 면에 기초를 두어 왔지만 個人이나 家族的인 면에서는 少子女로 인한 個人 또는 家族의 福利追求라는 점에 焦點을 두어 왔던 것이다. 물론 궁극적인 면에서 出産力低下가 國家的인 目標概念과 個人이나 家族에서의 目的概念과 다같이 福利增進이라는 국면에서 相馳될 수는 없겠지만 個人 또는 家族의 動機가 國家目標에 우선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出産力 動向을 豫測하는데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中共²⁹⁾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中共은 社會主義 體制下에서 出産調節을 個

26) J. C. Caldwell, "Toward a restatement of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 1976, pp.321~366.

27) A. J. Coal,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1, Lieg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1973.

28) Ronald Freedman, "Theories of fertility decline: a reappraisal", *Social Forces*, Vol.58, No.1, 1979, pp.2~4.

29) Pi-Chao Chen, A. Miller, "Lessons from the Chinese experience: China's planned birth program and its transferab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No.6, Oct. 1975, pp.354~366.

人次元 보다는 國家次元에 우선을 두고 特定水準이하로 低下시킬 것을 強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中共이 안고 있는 國家的 狀況이 經濟的 落後狀態에서 약11億에 가까운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며, 또 계속적인 人口增加는 國家經濟發展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人口減少政策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出産調節은 모든 國家가 같은 目的이나 方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國家가 처한 社會·經濟 및 文化的 背景과 人口學的 特性, 資源이나 環境的 與件 또는 國家發展 潛在力 등이 出産調節의 背景變數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은 個人이나 家族의 경우에서도 例外될 수 없듯이 低出産의 動機的 要件이 個人이나 家族的 次元에서 각기 달리 造成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마다 또는 國家內에서도 地域別, 社會階層別로 出産樣相의 差異는 현저한 것이며, 子女에 대한 價置觀도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傳統社會의 多産時期에서의 出産樣相은 年齡에 따라서 큰 差異가 없이 20代에서 40代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둥근 산모양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최근의 出産樣相은 젊은층에 集約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出産間 間隔도 짧아졌고, 30代 이상의 高年齡에서는 낮은 出産率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30,31)} 또한 出産力의 地域別, 教育水準別 隔差도 점차 緩和되고 있으며, 不妊手術을 통한 斷産比率은 높아지고 있어 대부분의 夫婦들은 두자녀로서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즉, 出産力은 앞으로 代置水準 以下로 떨어질 展望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런 점은 앞으로 人口展望을 하는데 깊은 關心을 갖게 하는 점이다.

최근의 人口推計에서 우리나라 人口는 2000年代 初期에 停止人口를 豫測케 하고 있으며, 出産調節에만 力點을 두어왔던 人口政策도 이제 修正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기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32,33)} 이와 같은 狀況에서 이제까지 推進해온 出産力低下가 어떠한 意味를 가지며, 이로 인한 2次的 影響은 어떤것이 있는가를 再吟味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巨視的 觀點에서 볼 때 모든 政策이 民生福利에 기초를 두고 있듯이 이제까지 推進해온 出産調節政策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對策없이 늘어나는 人口와 經濟成長間의 不平均내지는 相互可逆的인 關係를 改善하고

30) Y. J. Kang, *ibid.*, 1981.

31) Kap Suk Koh, *ibid.*, 1985, p.82.

3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년을 향한 國家發展長期構想, 人口 및 保健醫療部門, 1985.

33) 經濟企劃院, 第6次 社會經濟開發5個年計劃, 1986.

扶養條件을 合理化시키면서 계속해서 經濟成長을 促進한다는 것은 당초의 直接的인 目標였으며, 또 人口增加抑制를 통해서 社會的 混沌내지 生活環境의 惡化 등을 豫防 또는 緩和시킨다는 것이 間接的 期待效果이기도 했다. 또 家族의 側面에서도 適正數의 자녀만을 가짐으로써 家庭經濟의 向上과 子女教育에 대한 期待充足 및 母子健康의 向上 등을 통해서 家族生活을 近代化시킨다는 점도 또한 主要命題였던 것이다.

이러한 出産調節의 目標나 期待의 直·間接的인 效果나 影響을 정확히 評價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出産力低下의 結果나 그로 인한 效果 및 影響은 至大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토대로 삶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는 福祉問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時期에 이르른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늘 社會現象에서 作用과 反作用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發展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個人이나 家族單位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한 例로서 人體에 異物을 注入하면 자체적 特性和 量에 따라서 體內에서는 특수한 反應을 나타내게 된다. 마찬가지로 社會나 家族單位에서도 出産力の 變化가 短期 또는 長期的으로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出産力低下가 미치게 되는 影響을 먼저 國家的인 次元에서 概括적으로 檢討해 보면 出産力低下는 우선적으로 調節目的에 따라서 다른 人口變數와 함께 人口增加를 鈍化시키는 쪽으로 作用한다. 또 出産力은 死亡力이나 移動과 같은 人口變數와 함께 長期的으로 人口構造의 變化에 2차적 影響을 미치게 된다. 經驗的 論據^{34,35)}를 빌리지 않더라도 人口構造의 變化는 死亡力の 減少에 의해서 보다는 出産力低下에서 더 큰 影響을 미치고 있음은 최근의 人口構造 變化에서도 엿볼 수 있는 점이다. 1960年 우리나라의 총인구중 14歲以下 인구는 42퍼센트를 占有했다. 이러한 率은 1980年에 34퍼센트로, 2000년에는 26퍼센트, 그리고 2020년에는 22퍼센트로 낮아질 展望이다. 相對的으로 65歲以上 인구는 1960年에 3퍼센트, 1980년에는 4퍼센트, 2000년에는 6퍼센트, 그리고 2020년에는 10퍼센트로 增加할 추세이다.

人口構造의 變化는 그 자체적인 意味에서 보다는 相對的인 次元에서 보다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出産力低下의 初期段階는 嬰幼兒人口 및 教育對象人口의 增大와 아울러 점차 雇傭人口의 增大로 轉向되는가 하면 老人人口의 增大에 까지 影響을 준다. 이리

34) Alfred Sauvy, *Old Age in the Modern World*,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1954.

35) Edward Rosset, *Aging Process of Population*,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64, p.88.

한 人口構造의 變化는 構成要件의 變動에서 扶養要件과 社會·經濟·政治 및 文化的인 諸側面과 관련을 갖게 된다. 한 例로써 消費構造의 變化는 물론 社會福祉의 要求나 醫療構造 또는 政治的 世代間의 影響力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최근 人口構造의 變化에 따른 教育이나 雇傭問題는 우리나라에서 1980年代를 전후해 對象層의 肥大로 混亂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結婚對象의 增大와 核家族化는 住宅難을 加速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또 앞으로 총인구중 65歲以上 老人人口가 10퍼센트 이상을 上回할 2000年代는 停年問題와 이에 뒤따르는 老人福祉 問題가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社會問題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老人問題는 단순한 扶養問題에 국한하지 않고 老人健康保護를 위한 醫療問題나 情緒的 또는 社會的 問題까지 결부되는 複合的인 問題가 뒤따르게 된다.³⁶⁾

이와 같이 人口轉換過程에서 特定人口變數의 急變은 相對的이고 連鎖的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한편 社會的 過密化와 多元化가 急旋回하는 경우 組織이나 個人間의 葛藤은 深化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病理的 逸脫現象은 주요한 社會問題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豫상되어 이를 위한 對應策이 促求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인구를 扶養하기 위한 經濟發展方向에서는 既存 人口構造나 特性을 고려한 經濟·社會·福祉의 發展方向이 같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그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出産力低下가 個人 또는 家族에 미치는 影響을 생각하면 어떤 인구에서나 出産의 直接的인 對象은 女性으로서 個人的 側面은 男性 보다도 女性에게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으며, 家族的 側面은 家族規模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出産의 個人的 側面은 出産이 일종의 生物學的 現象으로 母性 자신과 子女에게 미치는 保健學的, 經濟·社會的 影響을 들 수 있겠다. 妊娠 자체가 母性保健의 危險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 多産이나 人爲的 出産調節過程에서의 과다한 妊娠消耗 등은 母體에 좋은 影響을 줄 수 없고, 妊娠중 적절한 健康管理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死亡의 原因이 될 수도 있다. 또 한 嬰幼兒 保健에서도 多子女는 出産時 體重이나 營養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多産은 母子保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37,38)} 多産이 個人에게 미치는 影響은 이 외

36) 朱鶴中, “經濟的 保障과 生의 週期”, 社會保障研究, 第2卷, 韓國社會保障學會, 1986, pp.88~96.

37) Lewis R. Charles, M. Patuary, K. M. “Relationship between birth weight and selected social, environmental and medical care factors”, *American J. of Public Health*, Vol.63, 1973.

38) N. M. Morris, J. R. Udry, C. L. Chase, “Shifting age parity distribution of brith and decrease in infant mortality”, *American J. of Public Health*, Vol.65, 1975.

에도 養育과 扶養에 따르는 勞苦와 經濟的, 精神的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社會에서 多子女에 대한 否定的 要因들은 대개 經濟的, 情緒的, 또는 肉體的인 면으로 集約되고 있는 점³⁹⁾이 出產 당사자인 個人이나 家族의인 면에서 共有되고 있는 要因들이다.

出產力低下가 家族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家族規模의 縮少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家族은 그 자체만의 變化로 끝나지는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家族은 産業化와 出產力 轉換에서 多樣性을 나타내게 되었고, 일정한 構造나 機能 또는 有用性만을 가진 것으로 論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즉, 傳統家族이 類型대로의 特異性을 지녔다면 現代家族은 傳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現代라는 狀況에 代替의 形態로 受容되어가고 있는 점이 그 것이다. 産業化 過程에서 核家族化 現象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아울러 家族에 관한 價値觀은 個人中心 性向에서 共同體 意識이 弱화되었다. 또 家族關係는 愛情이나 情緒만의 관계가 아니라 經濟와 生活面에서의 協力關係로 役割變化가 促求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變化에서 出產力低下는 家族生活週期面에서 보다 주요한 意味를 갖는다. 家族週期에 관한 接近은 結婚으로 시작되는 일종의 家族生活에 기초를 둔다.⁴⁰⁾ 즉 結婚에서 첫 出產과 마지막 出產에 이르는 出產期間과 子女의 養育期間 또는 子女를 모두 出嫁시킨 후 夫婦만의 生活, 配偶者 死亡後의 生活 등 家族生活의 變遷을 뜻한다. 여기서 出產力の 低下는 子女의 出產期間(再生産期)과 養育期間을 短縮시키는 要因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半世紀間 出產期間이 과거 약11年에서 최근에는 3年으로 短縮되었고, 子女의 養育期間은 14年에서 23年으로 延長된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⁴¹⁾ 즉 出產에서 養育에 이르는 期間은 약 25~26年이 所要되고 있지만 적은 子女를 갖게 됨으로써 出產期間이 減縮되었던 반면 子女教育期間은 延長되므로 전체 養育期間이 延長된 結果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家族週期の 變化는 家族內에서의 전반적인 生活變化를 뜻한다. 子女의 出產과 養育이나 教育에 이르는 生物學的 또는 社會·經濟的 側面에서 부터 家族成員間的 關係 및 役割에 이르는 家族機能的인 면과 家族의 構造 또는 制度

39) Sung Jin Lee, Jung Oh Kim, *The value of children ; a cross-national study*, Vol.7,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1979.

40) Evelyn Millis Duvall, *Family Development*, J. B. Lippincott Company, Philadelphia & New York, 1962.

41) 孔世權外, “出產力低下에 따른 女性의 家族週期考察”, 人口保健論集, 第5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的인 면이 그러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近代社會에서 家族의 變化는 出産力의 變化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家族의 變因은 家族의 內的 또는 外的 要因이나 構造的 또는 社會環境的 要因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오늘날의 家族은 傳統的 脈絡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變化된 社會的 狀況에 適應하려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家族의 構造나 生活樣式, 家族間의 關係나 役割 등이 모두 그러하다. 즉 産業化는 都市化와 함께 分業과 專門化가 요구되는 經濟生活로 轉換되어 왔듯이 家族生活도 核家族化와 같은 獨立된 生活條件을 要求하게 되었고, 친척간의 紐帶感도 弱화되기 시작했다. 또 教育水準의 向上이나 配偶者의 選擇 및 決定權이 결혼당사자에게 이양되면서부터 夫婦關係는 從屬的이던 것이 平等한 方向으로 變化되기 시작했고, 多子女의 過重한 養育과 教育負擔을 減少시키는 方案으로 少子女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또 夫婦중심의 核家族과 移動性 職場生活등은 자신들의 父母에 대한 扶養問題를 가져오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少子女를 갖게 됨으로써 出産 및 子女의 養育期間이 단축되어 相對的으로 女性은 家族內에서의 役割減少를 가져와 그로 인한 餘暇는 家族外的인 領域으로 擴大되기 시작했다.^{42~45)}

여기서 出産力의 低下가 個人이나 家族에 미친 영향은 女性의 健康이나 家族規模의 減少에 국한하기 보다는 이로 인한 2차적 波及效果라 하겠다. 우리는 현재 小家族 또는 核家族이 갖는 많은 長點을 생각하면서도 감추어진 短點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함께 再考해야만 하는 것이다.

近代社會에서 平均壽命이 연장되면서 老齡人口는 增大되고 있다. 여기서 核家族 및 小家族이 老人扶養을 責任지기 어렵다면 자신들의 老後에 대한 문제도 별도 對策을 미리부터 마련해야 하는 課題를 안게 된다. 「구드」(Goode)⁴⁶⁾의 지적과 같이 夫婦중심의 核家族은 父母가 疾病이나 事故 또는 夫婦間의 瓦解로 家族이 缺損狀態일 경우 子女나 기타 家族에게는 많은 問題의 危險性을 안게 된다. 그외 女性의 教育水準이 높아지면

42) 具成烈, “既婚女性の 經濟活動과 出産力”,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43) 具成烈外,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既婚女性の 經濟活動”, 韓國開發研究, 第2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0.

44) 洪思媛, “女性の 就業狀態와 出産力 變化”, 韓國開發研究, 創刊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4.

45) James L. Macable, Mark R. Rosenzwei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ccupational choice and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J. of Development Economics*, Vol.3, 1976.

46) William J. Goode, *The Family*, New Jersey, Printice Hall, 1964, p.110.

서 女性이 職業을 가질 경우 家庭과 職場의 兩立的 役割遂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젊은 夫婦로 이루어진 核家族은 家族文化의 連續性的 斷絶 및 子女教育의 혼돈 등의 여과도 제외할 수 없는 問題가 뒤따른다.⁴⁷⁾ 또한 核家族은 大家族制度에서와는 다른 住居形態나 生活樣式의 變形을 促求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核家族形態로서의 便宜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住居環境 造成과 家族內에서의 役割分擔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核家族으로써의 混亂은 殘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IV. 맺 음

본 論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出産力 轉換과 그 2차적인 影響을 巨視的 觀點에서 檢討하였다. 人口轉換過程에서 出産力低下는 두가지 側面에서 觀點을 달리한다. 그 하나는 西歐에서와 같은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開發變數가 出産力 低下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開發途上國家와 같이 産業化나 都市化가 成熟되기 전이라도 出産調節 動機를 造成함으로써 出産力低下가 가능하다는 論理가 그것이다.^{48,49)}

우리나라와 台灣등 일부 國家는 人爲的 出産調節의 특수한 模型처럼 비슷한 時期에 비슷한 方法으로 國家次元에서의 家族計劃事業을 展開함으로써 出産力低下에 成功한 事例가 되고 있다.^{50,51)} 그러나 그 出産力低下의 裏面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出産對象인 可妊期 夫婦들은 國家政策으로써의 人口增加抑制策에 呼應한다는 생각에서 보다는 個人 또는 家族의인 側面에서 少子女를 가지므로 얻게 되는 몇가지 利點이 出産調節의 動機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結果는 國家가 目標로 했던 過剩人口增加 抑制에도 크게 寄與했을 뿐만 아니라 個人들의 家族福利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는 점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檢討할 수 있다. 家庭單位에서 볼 때 少子女形成 動機는 같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家庭經濟의 向上이나 높은 水準의 子女教育 成就, 文化·情緒의

47) 李效再, 家族과 社會, 進明出版社, 1975, pp.58~59.

48) Ronald Freedman, *ibid*, 1979, pp.1~16.

49) Kingsley Davis,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No. 29, 1963, pp.345~366.

50) T.H. Sun, *Fertility control policy in Taiwan*, Rep. of China, (mimeo), 1986.

51) N.H. Cho, *Overall review of fertility control policies in Korea*, (mimeo), 1986.

家族生活 營爲, 母子의 健康과 女性의 自我實現을 위한 欲求등으로 集約되고 있다.^{52~54)}

人口에 대한 關心이 相對的 觀點에서 비롯되듯 人口政策 역시 國家의 經濟나 社會등 狀況條件과의 관련에서 計劃되고 推進될 수 밖에 없다. 過剩人口增加를 抑制하기 위해서 出産調節을 권장해 온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出産力低下가 人口增加 鈍化에 미친 영향은 括目할 만 하다. 물론 出産調節을 위한 手段은 避妊에 力點을 두어 왔지만 該간 人工妊娠中絶의 盛行이나 人口構造 및 結婚과 相關된 變數들이 複合的으로 作用되어 왔음도 度外視할 수 없다.⁵⁵⁾ 어떻든 國家가 出産調節 動機를 마련함으로써 該간의 出産力 變化는 전체 年齡에서의 出産力 減少와 20代에서 出産集約現象을 나타냈고 그로인한 빠른 出生 「템포」(tempo)를 나타내는 점이 特徵이라 하겠다.⁵⁶⁾ 또 最近 調查에서 婦人當 合計出産率은 2.1로 人口代置水準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2000年代 初에는 安定人口를 展望케 하는 要因이 된다.

우리나라는 西歐의 傳統的 類型과는 다른 人口轉換을 엿볼 수 있는데 急激한 死亡力 低下에 이어서 뒤따른 出産調節이 人口構造面에서도 급격한 影響을 주고 있는 점이다. 人口의 構造와 特性의 현저한 變化는 經濟的으로 生産 및 消費構造의 변화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물론 社會的으로 福祉需要의 樣相을 바꾸어 놓게 된다. 1960年代를 전후한 「베이비 붐」(baby boom)은 1970~1980年代의 教育 및 雇傭人口의 급증을 가져왔고, 結婚豊年과 核家族化로 인한 住宅難을 심화시켰다. 또 平均壽命의 延長과 人口構造의 變化는 앞으로 2000年代 初期부터 老齡社會를 豫見케 하고 있어 出産力低下에 따른 2차적 影響은 자못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出産力低下는 일차적으로 家族規模를 制限하는데 크게 寄與했지만 그 자체로써 끝나지는 않았다. 少子女形成은 家族週期面에서 볼 때 該간 半世紀 동안 出産期間을 약 3분의 1이상 (1935年 : 11年, 1985年 : 3年) 短縮시켜 온 대신 教育期間의 延長이 子女養育期(1935年 : 14年, 1985年 : 23年)를 배 이상으로 延長시켜서 子女教育에 寄與한 점이

52) Sung Jin Lee, Jung Oh Kim, *The value of children : Korea,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and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 1979, pp. 73~96.

53) Lolagene C. Coombs, Dorothy, Ferandez "Husband-wife agreement about reproductive goals", *Demography*, Vol. 15, No. 1, 1978.

54) 韓國行動科學研究所, 家族計劃의 心理學的 探索, 1972.

55) 孔世權外, 前揭書, 1983, pp. 156~160.

56)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年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5.

큰 것을 찾아볼 수 있다.⁵⁷⁾ 出産力低下의 間接的 影響은 家庭經濟의 向上, 母子保健의 增進 외에도 教育機會의 擴大와 아울러 家族內에서 女性의 役割變化를 지적할 수 있다. 즉 出産期間의 短縮은 이로 인한 餘暇의 善用과 自我實現을 위한 機會를 갖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就業의 性向도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러나 小家族形成과 核家族化 性向은 家族生活面에서 肯定的인 點만을 갖지는 않는다. 家族生活에서 幸福의 條件중 하나가 알맞는 家族規模였다면 뒤따르는 문제도 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小家族化 내지 核家族化는 앞으로 자신들의 老後問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要件을 안게 한 것이다. 둘째, 젊은 夫婦들만의 核家族은 家族文化 斷絶의 위험뿐만 아니라 缺損家族의 위험마저 안게 된다. 각자 固有의 家族文化를 계승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文化를 形成하기 위한 混沌이 뒤따르며, 夫婦가 모두 또는 어느 한 쪽이라도 疾病이나 事故로 死亡할 경우 생기는 缺損家族은 家政經濟와 子女養育의 問題가 뒤따르게 된다. 세째, 核家族에서 夫婦가 모두 社會活動에 參與할 경우 家事와 子女養育 및 教育問題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결국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한가지 問題를 解決하면 그에 뒤따르는 보다 많은 問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見成烈, “既婚女性の 經濟活動과 出産力”,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見成烈 外,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既婚女性の 經濟活動”, 韓國開發研究, 第2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0.

孔世權外, 韓國家族計劃事業：1961~1980,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孔世權外, “出産力低下에 따른 女性의 家族生活週期 考察”, 人口保健論集, 第5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經濟企劃院, 第6次 社會·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86.

經濟企劃院,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2 퍼센트 標本速報 集計結果, 1986.11.

盧明植, “韓國現代史의 挑戰과 展望, 90年代의 排戰과 未來創造”, 全經聯叢書, 第4卷,

57) 孔世權外, 前掲書, 1985, p.34.

- 韓國未來學會, 1978.
-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現象, 朝鮮總督府 調查資料, 第22輯, 1927.
- 李時伯, “南北韓 人口의 長期展望과 人口學的 比較分析”, 韓國人口學會誌, 第8卷, 第2號, 韓國人口學會, 1985.
- 李效再, 家族과 社會, 進明出版社, 1975.
- 朱鶴中, “經濟的 保障과 生의 週期”, 社會保障研究, 第2卷, 韓國社會保障學會, 1986.
- 韓國產業銀行, 韓國產業經濟 10年史, 1970.
- 韓國產業銀行, 國勢調查報告結果 (未發刊), 1949.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人口 및 保健醫療部門, 1985.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年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5.
- 韓國銀行, 韓國經濟年鑑, 1949, 1955.
- 韓國行動科學研究所, 家族計劃의 心理學的 探索, 1972.
- 洪思媛, “女性의 就業狀態와 出産力 變化”, 韓國開發研究, 創刊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 Bogue, Donald J., The end of population explosion, *The Public Interest*, No. 7, 1967.
- Caldwell, J. C., “Toward restatement of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 1976.
- Chang, Ming-Cheng, From now to zero, population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 the case of Taiwan, (mimeo), 1986.
- Charles, Lewis R., Patuary M., K. M. “Relationship between birth weight and selected social, environmental and medical care factors”, *American J. of Public Health*, Vol. 63, 1973.
- Cho, N. H., Overall review of fertility control policies in Korea, (mimeo), 1986.
- Chen, Pi-Chao, A. Miller, “Lessons from the Chinese experience, China’s planned birth program and its transferab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No. 6, Oct. 1975.
- Coal, A.J.,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 1, Liege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1973.
- Coombs, Lolagene C., Ferandey Dorothy, “Husband-wife agreement about reproductive goals”, *Demography*, Vol. 15, No. 1, 1978.
- Davis, K.,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No. 29, 1963.
- Daris, Kingsley, “Population policy : will current programs succeed?” *Science*, Vol. 158, No.

- 10, 1967, 10.
- Duvall, Evelyn Millis, *Family Development*, J.B. Lippicott Company, Philadelphia & New York, 1962.
- Ehrlich, Paul, *The Population Explosion : Facts and Fiction*, Palo Alto, Calif : Zero Population Growth, 1970.
- Freedman, Ronald,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1975.
- Freedman, Ronald, "Theories of fertility decline : a reappraisal", *Social Forces*, Vol. 58, No. 1, 1979.
- Goode, William J., *The Family*, New Jersey, Printice Hall, 1964.
- Hong, Sung-Bong, Watson, Walter B.,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Induced Abortion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6.
- Kang, Y. J., *Analysis of Birth Interval and Fertility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81.
- Koh, Kap Suk, "A review of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fertility and contraceptive prevalence in Korea : some implication for policy suggestion", *The J.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Vol. 8, No. 2, 1985.
- Kim, Taek Il, Ross, John A., Worth, George C.,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The Population Council, 1972.
- Kwon, Tae Hwan,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 Lee, Sung Jin, Kim, Jung Oh, *The Value of Children : Korea*,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and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 1979.
- Lee, Sung Jin, Kim, Jung Oh, *The value of children : a cross-national study*, Vol. 7,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1979.
- Macable, James L., Rosenzweig, Mark R.,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ccupational choice and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J.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 1976.
- Morris, N.M., Udry, J.R., Chase, C.L., "Shifting age parity distribution of birth and decrease in infant mortality", *American J. of Public Health*, Vol. 65, 1975.
- Nortman, Dorothy 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The Population Council, 1982.

- Ogburn, William F., "Cultural lag as theor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41, 1957.
- Rosset, Edward, *Aging Process of Population*,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64.
- Sun, T.H., Lin, H.S., Freedman, Ronald, "Trends in fertility, family size, preference and family planning practice : Taiwan, 1961~1976",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9. 1978.
- Sun, T.H., Fertility control policy in Taiwan, Rep. of china, (mimeo), 1986.
- Sauvy, Alferd, *Old Age in the Modern World*,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1954.
- Taeuber, Irene B., Barclary, G.W., "Korea and Korean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opulation Index*, Vol. 16, No. 4, 1950.
- United Nations, ESCAP,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monography series, No. 2, 1975.

Abstract

Recent Fertility Transition and its Secondary Effects in Korea

Sae Kwon Kong*· Ae Jeo Cho**

This study has examined the recent fertility transition and its secondary effects from macro-developmental view. Fertility decline has revealed two different point of view in the process of demographic transition.

It was illustrated that in the Western societies, fertility decline had resulted from complex effects according to changes of socio-economic structure since industrialization, while it is emphasized that a majority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where the fertility has been declined, has actively suggested through the motivation of fertility control and its derive has affected on fertility decline even prior to industrialization.

As a new developing model of induced fertility control, Korea as well as Taiwan have recommended fertility control policy to be a population control policy at the national dimension. Nevertheless, foreseeable advantages or disadvantage with a few-oriented child-bearing at individual or family unit level had become the major motive for eligible women of fertility target rather than the collaborating attitude toward population control policy at national level. Those results have greatly devoted to population control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 national policy.

While the main motive of a-few-child orientation has differentiated from individuals and families, it generally has influxed from increase of home economics, high educational level, cultural and emotional family life, self-realization of the needs of reproductive generation and so on.

As the concern about population has always appeared at relative aspect, so the impact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of fertility decline can be found in the slow down of over-population increase and change of demographic structure.

While fertility control as a population control policy was mainly composed of on contraceptive services, it is estimated that complexed impact of variable relevant to prevalent induced abortion or marriage and variable relevant to demographic structure has derived fertility decline. Since the recent fertility shows accumulating phenomenon on the later twenties with rapid change in fertility tempo and total fertility rate reaches 2.1, these all can be estimated stable population in the forthcoming early 2000.

In Korea, it shows that population pattern different from Western society, more rapid mortality decline and acceleration of fertility decline, consequently that the aging would occur more rapidly and, conceivably, the proportions of older ages might reach higher level, and actual negative growth might be reached more quickly. The implication is that the issues of manpower, health and social security associated with aging need to be faced more complicated issues. It has also partly told that change of education and employment patterns, increasing of housing need due to nuclear family, marriage boom and health care for elderly people along with forthcoming aging.

The impact of fertility decline on individual or family leads more greater concern about inevitable secondary effects beyond primary effect of shrunken-up of family size. Firstly small family orientation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has shortened childbearing period from 11 years to 3 years and decreased more than two-third in family life cycle.

In respect to the concept of family life cycle, the longevity of child rearing and educational periods seems extended from 14 years to 23 years during last 50 years or so has devoted to qualitative child rearing and education as well as improvement of Korean home economics system. This factor will be prominent with change of fertility and will be seen to affect on the overall the family life.

Small family norm brought about more attention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nd gave a chance for self-realization of women with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y.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of women's concepts about their role in that they could achieve self-realization and seeking income for the family through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matter of fact, women's labor participation rate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especially

in premarital and after child bearing ages.

But the nuclear type small family trend does not always give a positive aspect of family welfare. Nuclear family is involving aging care problem in the case of avoiding care for the aged parent and expecting confusion in succession of family culture. Nuclear family cannot be excluded of isolation of family membership or family dissolution, a various economic and educational problem caused by danger or single-parent family or children family, home affairs 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al problem followed by employment of both married couple.